

◆ 이시다 다케시, 일본의 사회과학 (소화, 2003)

0. 들어가는 말

- 일본 사회과학의 (비교)사상사: 성찰적 사회과학을 위하여
- 시대별 인간에 대한 개념화에서 사회와 사회과학의 점점 발견(개념사-지성사-사회사)

1장. '일국독립'과 국가학

1. '천하', '국가(國家)' 및 '신민(臣民)'

- 일본에서 '국가' 표현은 7세기 초 보임. 8세기 초 방(邦), 국(國), 방가(邦家) 등 표현
 - ① 통치기구(전국.진한 이후 중국에서 유래) ② 만세일계의 천황지배
- 막말까지 '국'=번. 천하=일본의 용례
- 중국 고전에서 신은 황제와 함께 지배계층, 민과 대항관계; 막번체제 일본에서도 무사층과 민 구별
- '신민': 메이지 유신은 사족 특권 폐지, 메이지헌법은 신과 민을 하나로 권리 의무 규정 (위로부터 만들어진 범주)

3. 국가학의 발달

- 부국강병의 문명표준 달성, 서구국제사회 진입이라는 실용적 목적에서 사회과학 도입 (불평등조약 개정)
- 국가가 사회의 우위에 서는 프러시아형 근대화 노선 채택, 독일 국가이론의 자유주의적 요소 배제+신화적 세습 요소 접합
- 국제법: 1864년 중국에서 번역된 『만국공법』을 1865년 개성소(開城所: 에도막부의 양학교육관)에서 번각, 출판/ 기초이론 생략, 실용적 부분 번역
- 1877년 도쿄대학 창설: 점차 독일/프러시아학 중심으로 이동. 1881년 독일학협회, 1887년 이토 히로부미 발기로 국가학회 창설(관학 중심 독일계 국가학 진흥 목적)
- cf) 1887년 도쿠토미 소호의 '평민'(밑에서부터 '사회'를 형성해가는 주체): 1887년 민우사 발족, 『국민지우』 잡지 발행(스펜서적 사회진화론: 중등계급 성장에 의한 산업사회화 전망), 그러나 청일전쟁 & 삼국간섭 이후 전향

4. 개별과학으로의 분화

- 오쿠마 시게노부 일파 축출한 1881년 정변 이후, 밀 경제학, 영국법, 프랑스법 전통은 도쿄 전문학교(와세다대학)으로: 정치경제학(정치학과 법학 분리), 정당론, 벤담적 공리주의적 영미 법학
- 후쿠자와 유키치의 게이오기주쿠와 교순사: 자유주의 경제사상 보급, 영국법 중심 교과과정 ==>메이지정부의 경제 대상
- 다구치 우키치, 아마노 다메유키가 도쿄경제잡지(1879), 일본이재잡지(1889), 동양경제신보(1895) 등 잡지 통해 입헌주의, 자유주의, 스미스의 『국부론』, 밀의 『경제학원론』 번역 보급
- 정치학의 독립: 1900년대에 들어 정치학은 국가학과 분리, 실증화되는 경향. 교수 전업 전문

학자의 등장

2장. '사회'의 의식화와 사회정책학회

1. '사회' 의식화의 일본적 특징

- '사회'라는 번역어의 등장은 1875년, 정착은 1885년 무렵: 사회학=스펜서 사회진화론
- 서구의 civil society, bürgerliche Gesellschaft='시민 사회'는 국가에 대응하는 독자적 통합성 상징: 일본의 '사회'는 국가 질서의 잉여, 산업화에 뒤떨어진 전근대적 문제적 대상 (ex. 농촌-지방의 하층사회, 사회문제)
- '정치'에서 배제된 '사회': 정치는 엘리트 장사(壯士) 정객의 일, 사회는 독자적 정치세력화하지 못한 무질서하고 혼잡한 집단 (선거권의 제한, 일시적 폭동)

2. 사회정책학회(1897)의 '국가'와 '사회'

- 취지: 자유방임주의에도 반대, 사회주의에도 반대, 계급갈등 방지 & 사회조화 도모
==> 후발산업화 국가의 예방적 노동유화 사회정책 옹호(독일의 영향, 사회공학) '개량주의'
- 독일 역사학과/ 사회정책학파적 경제학의 영향, 독일의 사회정책학회(1873) 모델로 창설
- 노동자 세력 미성숙, 일본 사회민주당 결성 금지(1901) 상황에서 현실대응이 아닌 사상·학설 도입이 선행 ('최신 경제학'으로서 '강단 사회당' 이론)
- 메이지 후기 '사회'의 고유한 존재영역 불분명, '국가'에 흡수되는 경향 (스펜서, 사회유기체론이 일본에서는 국가유기체론에 경도된 형태로 도입)

3. 사회정책학회에 대한 비판과 내부 분화

- 자유주의 경제학자 다구치 우키치의 비판: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학의 이익조화설 근거로, 자본과 노동의 자유경쟁에 국가개입 반대 (*실업계의 시혜적 주종관계 논리에 대한 반박이었음)
- 좌파 가타야마 센의 비판: 조화가 아닌 주인과 노예. 노동조합, 동맹파업 주장.
- 메이지 사회주의 & 노동세력의 미성숙. 민주사회주의와 국가사회주의의 동행.
- 다이쇼기 사회주의 노동운동 본격 전개되면서 1924년 12월 해산

3장. '민중'의 등장과 시민사회의 자기주장

1. '민중'의 등장

- 다이쇼 정변을 계기로 '별쪽타파 헌정옹호'의 주체로 등장
- cf. '평민': 도쿠토미 소호의 1880년대 평민주의, 1903년 고토쿠 슈스이의 평민사 결성 (평민주의, 평화주의, 사회주의), 1914년 오스기 사카에의 『평민신문』 발행 ==>사회변혁주체X
- 교순사계의 신흥 상공 시민계급이 경제적 이익 중심 정치세력화, 영업세반대 반정부운동 전개, 내각 교체 cf) 1905-6년의 폭동 주도세력은 도시 하층민
- 다양한 사회층 포함: 신흥 부르주아+정론(政論) 기자들+대중집회 참석 도시하층민...

2. 지식인의 집단 형성-여명회(黎明會)를 중심으로

- 다이쇼데모크라시기에 언론기관은 지적 활동과 정치사회운동을 매개: 초기에 신문, 후기에 잡지 (중앙공론, 태양, 개조...)

- 출판물에 의한 집단화: 형적으로는 지식인들의 연대, 종적으로는 대중으로 침투
- 1918년 요시노 사쿠조 여명회 창립: 민주주의 옹호하기 위한 자발적 계몽단체='교수 데모크라시', 1차대전 후 낙관적 이상주의, 개조 운동, 민주주의 보급

3. 다이쇼민주주의와 사회 이론의 방법

- 법학과 국가학의 분리: 국제론 배제, 정체로 일원화 (일본=입헌군주정체)
- 법학에서 독립된 정치학의 영역: 요시노 사쿠조 '주권의 소재'(민주주의)/'주권의 운용'(민본주의==>보통선거 요구, 귀족원 추밀원 비판) 구별, '사회의 발견' (국가/사회 구별: 사회=국민의 공동생활체)
- 국가학에서 벗어난 신칸트학파적 사회과학 인식론 수용

4장. 계급의 출현과 사회과학

1. 계급의 의식화

- 1918년 쌀가격 등귀에 대한 민중폭동==>무산계급의 힘 각성 계기 +1917년 러시아혁명
- 다이쇼 초기 다양한 사회층 내포하던 '민중'이 '무산계급', '노동계급'으로 특수화
- '사회문제'의 의미변화: 계급대립을 내포한 항구적, 구조적 현상 (cf.메이지 '사회문제')
- '사회과학'=마르크스주의: '사회과학연구회'=마르크스주의 연구단체 & 급진적 정치활동가의 거점(1924 학생사회과학연합회) ==> 사상탄압의 대상
- 1925년 보통선거법 & 치안유지법(국체, 사유재산제 부인이 구성요건) 공포 ==>국가권력은 시민사회 중 자본가 계급의 편

2. 마르크스주의에 의한 '사회과학'의 독점

- 사회주의운동 사상으로서 마르크스주의의 일본 소개: 1902-1910년 단편적으로 이루어짐
- 러시아혁명 & 쌀소동 거친 뒤 양적 증대: 1919-1925년 『자본론』완역, 1927-1929년 『마르크스.엔겔스전집』 출판
- 1919년 도쿄대학 & 교토대학 경제학부 법학부에서 독립; 국민경제학의 방법이 사회정책학에서 마르크스주의로 이행
- 마르크스주의의 보급: 후쿠모토이즘 유행과 『일본자본주의 발달사강좌』
- ①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보편성, 체계성, 비판성 보여줌
- ② 일본의 자본주의.사회주의 발달의 압축적/단축적 특수성 지적
- ※ 강좌파 (vs. 노농파): 메이지유신을 부르주아혁명으로 보지 않고, 천황제 국가권력의 본질을 절대주의로 봄. 일본 자본주의는 1890년대 후반 제국주의로 전화, 군사적.반농노제적 자본주의라는 특수한 형태 형성. 당면한 혁명과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. (노농파: 프롤레타리아 혁명)

3. 일본에서의 마르크스주의의 문제점

- 수입된 이론의 권위에 의존함으로써 보편성은 수입성이 되고, 체계성은 교조주의가 됨
- 천황제 및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이 탄압이 1930년대 강화되면서 말초적 이론논쟁, 내부대립 분파주의화

5장. 위기의식과 '민족'협동체

1. '비상시'와 '민족'

- 국내 사회경제적 위기(공황, 실업, 농촌빈곤), 정치적 위기(정치불신, 공산당탄압, 우익의 정치테러), 일본의 국제적 고립(1931년 만주사변, 국제연맹 탈퇴)==> 위기감 고조 (정부와 우익의 '비상시' 슬로건) ==>국내문제를 대외전쟁으로 돌파==>'고도국방국가' 건설 군국주의
- '민족'이 '계급' 포섭: 민족/계급 대립시키는 코민테른 정치 원칙은 일본에 맞지 않음 (좌파 집단 전향) ==> 나치 독일과 달리 '민족', '민족협동체(Volksgemeinschaft)', '국가'의 구별 없음
- '국가'가 '사회' 포섭: 1938년 국가총동원법 등 국가통제권력이 전 사회적 규모로 침투
- 파시즘시대 일본의 계급대립 회피/ 사회통합 강화 ==>메이지 국가유기체론의 부활

2. '참여'하는 사회과학자-쇼와연구회를 중심으로

- 고노에 후미마로의 '신체제'와 쇼와연구회(1933-1940) ==>대정익찬회(1940-): 정책의 사후 이론적 정당화 작업
- '협동주의', '국민협동체', '동아협동체론', 대동아공영권, 동아신질서
- 메이지 말기~다이쇼기 국체론의 부활: 일본의 입헌주의는 일본의 국체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 정치적 형성의 내재적 원리에 입각...
- 동아공동체의 논리: 도덕윤리를 기준으로 법치적 기준에 의한 영토적, 주권적 민족국가 이론의 극복

3. 마르크스주의 이후의 사회과학: 제3의 길, 단 하나의 길

6장. 패전 후 사회과학의 소생

1. '인민'의 시대에서 '대중 사회'로

- '국가'와 '사회'의 동반 몰락
- '인민' 개념의 부상(1945-52) ① 천황제 타도, 인민공화정 실현 통일전선 (민주인민전선, 인민재판 by 좌익) ② 전후 생활난에 시달리는 피치자/ 피억압자 일반 (고전적 계급 범주 X)
- 마르크스주의와 '사회과학'의 부활: 1947년 미점령당국의 역코스과 2.1 총파업 금지 이후 공산당은 '민족' 강조, 민주민족전선전술, 한국전쟁 반대와 '민족독립'지지
- 한국전쟁 특수 이후 1950년대 후반 경제부흥==>'대중 사회'(계급의식 희박, 소비주제)

2. '회한공동체' 속의 집단화와 그 귀추

- 전후 일본 지식인들의 자기비판과 개방된 지적 공동체 결성(1945-50): 청년문화회의, 민주주의과학자협회, 20세기연구소 사회사상연구회
- 전시 전향에 대한 반동으로 '단종적 실천'으로 나아간 마르크스주의자+이데올로기 대립=회한 공동체의 해체와 전문별 학회 형성 (1950년대)
- 1948년 일본정치학회 설립: 독일학 대신 미국 영향 급증
- ①역사지향 ②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관심 ③분석대상으로서 가치, 분석의 가치적 전제 중시 ④ 정치비판적 성격 강함

3. 전후 사회과학의 사상: 오쓰카 히사오, 마루야마 마사오

7장. '시민'의 분출과 현대 사회과학의 과제

1. '시민'의 분출과 그 이후

-1960년 미일안보조약 개정반대운동을 계기로 '시민' 분출: 사적 이익에 기반한 권리 의식 (기존조직에 대한 비판, 무당파성, 자발성, 아마추어성)==>기시 정권 퇴진

-시민대중=수동적 대중+자발적 시민의 양면성: 1960년 총선거 자민당 압승 (고도성장)

-1961년 주일미국대사 라이샤워, 일본근대화 상찬과 64년 도쿄올림픽 개최: 대국 의식

-1960년대 중반 베트남전쟁과 '시민연합' 베헤렌

① 일상생활의 평화+반전평화 자체가 목적 ② 지도자와 지령 없는 풀뿌리 조직 ③ 국제연대

-1968년 미국 원자력 항공모함의 도일 반대 계기로 학생데모 분출: 일본의 마르크스주의 퇴조(스탈린비판, 중국 문화대혁명) 속에서 파리, 미국에 비해 단발적

-1970년대 시민운동의 특징

① 중앙보다는 지방('혁신자치체'의 등장: 저항과 참여) ② 의회 민주주의보다는 직접 민주제

③ 일상적인 의제에 관심(영구혁명으로서의 시민운동 or 주민운동)

-1973년 석유위기 이후 저성장 시대, 지자체의 재정곤란==>1980년 총선거 자민당 압승

2. 사회과학의 전문분화와 그 문제점

-1960년 안보운동 당시 지식인들의 단기간 연대

-1960년대 고도성장기 사회과학의 전문분화 진행, 베버's '의식 없는 전문인'화

-1960년대 미국 사회과학의 행태주의, 근대화론 영향

-1969년 미국 정치학회회장 데이빗 이스턴의 취임연설: 행태주의의 경험적 보수주의 지적, 방법론 배후의 가치적 전제에 대한 반성 촉구

- 마르크스주의 퇴조 속에서 우노의 마르크스경제학 생존: 이론과 실천 구별, 과학과 이데올로기 구별, 이론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

3. 오늘날의 문제 상황과 사회과학의 과제

-관리사회화 진행 중인 경제대국 일본의 미래. 또 다시 군사대국으로의 길?

-더 이상 선진국의 범례가 없음에도 일본 사회과학의 수입의존 전통. 전문분야에 매몰된 정치학자의 태만.

-사상의 종언과 보수적 분위기 속에서 깨어있는 지식인. 문제상황에 대한 감수성+가치적 전제에 대한 의식: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과 소명의식

8장. 맺음말